



I Have a Dream

- 1954년 생
- 국제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 제12회 외무고시 합격(1978년)
- 주미한국대사관 총영사
- 주 노르웨이 대사관 대사
- 고려대학교 겸임교수
- (現)주 브루나이 대사관 대사



최 병 구

一. 글 머리에

外務高試 합격이라는 꿈을 간직하고 열심히 키워나가는 분들과 잠간 동안 생각을 나누고 싶어 이 글을 쓴다.

外務高試에 합격하여 外交官이 되려는 분들에게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二. 統一이여

세계지도를 펴보자. 아시아의 東北端에 위치한 半島의 나라, 동해의 푸른 물은 넘실거리고, 백두산으로 부터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찬란한 햇빛이 비치고 있다. 이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누가 두동강이 냈단 말이나.

노산 이은상 선생님은 목놓아 울었다.

‘길이 끝났네, 더 못 간다네
병정은 총 들고 앞길을 막네
저리 비키오, 말뚝을 뽑고
이대로 북으로 더 가야겠소

바닷가 모래 위에 주저앉아
 파도도 울고, 나도 울고'
 얼마나 가고픈 땅인가. 목전에 두고도
 못가는 내땅. -----
 '주여 이 땅에 통일과 자유와 평화를 비 내리듯,
 꽃 피우듯 부어 주소서 그 땅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그 땅에서 살게 해 주소소서'

신문에서 지게 할아버지에 관한 기사를 읽은 일이 있다. 67세인 이 할아버지는 방한칸 없이 노숙하여 하루 번돈 2~3천원 중 밥값 6백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장학금과 불우성금으로 보낸다 한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유일한 소원은 돕는 사람들이 잘 살게 되고 두고온 북녘땅을 밟아 보는 것이라 한다.

어찌 북녘땅을 밟아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게 할아버지 뿐이겠는가. 우리는 가야한다. 기어이 가야 한다. 가야할 山河다. 가고야 말 땅이다.

自由中國에서는 장충동의 유해를 생전에 그가 자주 다녔던, 慈湖별장에 임시로 안치했다고 한다. 그만큼 그들은 본토수복을 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본토회복의 집념을 불태우고 있는 것이다.

1876년 開國以後 1961년 5.16革命 이전까지는 분열과 과국의 역사였고, 이어 1960년대를 지나 1970년대는 안정과 번영의 역사였다. 이제 남은 20년, 우리 조국 통일의 역사를 창조하여 2,000년 후의 년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는 外交官이 되어 우리의 對外關係를 담당하려는 사람들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의 도움없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민족사적 정통성에 입각해서 성취되어야 하는데, 우선 한반도에 平和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따라서 훌륭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 外交官으로 많이 등용된다는 것은 祖國統一의 그날을 좀 더 앞당기는 길이라 생각한다.

三. 뜻이 있기에

Rlike는 'Briefe an einen jungen Dichter'에서 '만일 당신이 글쓰는 일을 거절당할 때 정녕 죽어야 옳은가 자백해 보십시오'라고 말한 바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평범한 진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왜 내가 外務高試에 합격해야 하며, 나아가 왜 外交官이 되려는가 자문해 보라. 그 대답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합격의 꿈은 곧 실현되리라. Vouloir, c'est pouvoir. Du Kannst, so wolle nur. 佛語로나 獨語로나 모두 원하기만 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이다. 中國語에도 '天下無難事, 只怕有心人. 有志者事竟成'이란 말이 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高試의 관문을 통과하는데는 분명히 커다란 좌절과 방황

그리고 쓰라린 고통이 요구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高試에 뜻을 두기 전에는 냉철하게 자신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막연한 생각으로 대드는 것은 절대 금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뜻이 선 다음에는 그야말로 불굴의 신념과 의지로 이루고 말아야 한다.

Der Schwierigkeit wird nicht leicht überwunden, doch wir haben diesen Trost für uns: je härter der streit, desto herrlicher der Triumph.

四. 길을 잃어서

1. 제1차 시험

제1차시험은 최종합격을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다.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착실히 준비해야 한다. 시험장에서는 문제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답을 골라내야 한다. 평소에 정확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을 길러 두어야 함은 물론이다.

(1) 정치학

제10회 시험에서는 정치학에서 너무 저조한 점수를 얻은 바람에 실패하여 평소에 시간나는대로 대부분의 교과서를 노트해두고 훑어 보았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갈피를 잡을 수 없었으나 정치학 사전까지 동원하여 준비를 해놓으니까 자신감까지 생겼다. 시중에 문제집이 두 가지정도 있으나 보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폭넓은 상식도 동원되어야 할 과목인 것 같다.

(2) 경제학

제11회 시험의 경제학은 무척 어려운 문제가 출제되어 크게 고전했다. 原論은 조순 교수님 책으로 몇 번 보았고 各論도 여러권 보았다. 문제집은 여섯권을 보았으며 과락이 아닐까 염려했었는데 좋은 점수를 얻었던 것은 문제집으로 답을 고르는 능력을 키운 덕분이 아닌가 생각된다. 제1차 시험으로서의 경제학은 이해위주의 공부를 해야 할 것 같다.

(3) 국사

최근 들어 국사문제도 꽤 생각을 요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이기백 교수님 책으로 줄거리를 잡고 대부분의 문제집을 풀어 보았다. 고시 잡지에 국사 공부방법이 실린 적이 있으니 꼭 참고 하기 바란다.

(4) 영어

영어에 웬만큼 자신 있다고 해서 문제집을 다루어 보지 않으면 크게 오류를 범할 수 있을지 모른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문제를 풀어, 짧은 시간에 정확히 답을 고르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2. 제2차 시험

제2차시험의 문은 가장 좋다. 그러나 통과하기만 하면 거의 목적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다. 제2차시험에서는 무엇보다도 실력이 중요하지만 약간의 요령이 필요한 것 같다. 이에 관해서는 많은 분들이 合格記를 통하여 소개한 바 있으니 반드시 참조하기 바란다.

(1) 헌법

문홍주, 김철수 교수님 교과서와 주관식 문제집을 몇 권 보았다.

헌법공부방법에 대해서는 한상범 교수님이 고시잡지에 쓴 글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제12회 시험에서 가장 고전한 과목이 헌법인데, 조금도 소홀히 하지 말고 차근차근 착실히 공부해 나아가야 할 과목이라고 생각한다.

헌법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출제자의 의도에 접근시키며 핵심되는 내용을 빠뜨리지 말고 관련사항은 모두 언급하는 것이 득점에 유리할 것이다.

(2) 국제법

박관숙 교수님 책을 기본서로 공부하고, 이한기, 이병조 교수님 책으로 보충했다. 국제법은 법과목이므로 점수도 박하며 문제의 성격도 독립적이므로 유추해서 쓸 수 없어 과락맞기 쉽다. 문제당 우선 골격을 잡고 관련된 Case를 철저히 동원하며 연습해 두어야 한다. 답안작성때는 천편일률적이고 平面的인 서술을 하지 말고 그것이 갖는 시대적 문제성에 착안하여 출제자의 의도에 적합한 핵심을 찌러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해설기사 중에는 국제법과 관련된 것이 많으므로 주의해서 보아두면 도움이 될 것이다.

(3) 외교사

제11회 시험에서 극히 저조한 점수를 얻어 가장 신경을 쓴 과목이다. 우선 관련 서적이 열권이나 이르렀다. 이번 시험에서도 70점을 예상했으나 실제 점수는 좋지 않았다. 생각건대, 출제 교수님들이 바랬던 내용을 쓰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다. 득점은 저조했어도 나는 外交史를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했다고 자부한다. 東西洋의 外交交渉史를 노트에 年表로 정리해 놓고 전체의 흐름과 각 사건이 갖는 國際政治史的 意義 파악에 주력했다. 외교사는 역사적 사건과 사실을 암기하는데 역매여 근시안적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그 시대적 배경과 다음 시대에 미친 영향이 무엇인가를 분석해 보아야 한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끊임없는 對話라는 Carr의 말대로 어떤 사건이 역사의 과정을 지나 오늘날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나를 주의해서 공부해야 한다.

(4) 영어

자신이 있다고 해서 게을리 하다가 마음먹은대로 점수를 못 얻은 과목이다. Time

이나 Newsweek를 틈틈이 읽어두고 Korea Herald 사설을 2년 가까이 보았다. 作文은 영작문책 다섯권을 보았다. 英文을 어떻게 이해한다는 것과 그것을 매끄럽게 해석해 낸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별개의 문제이므로 평소에 몇 단락씩 직접 써가며 해석해 보았다. 作文할 때는 정확한 방법으로 영어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험장에서는 해석과 작문의 시간안배도 적절히 해야 할 것이다.

(5) 불어

대학 1학년때 처음 배우기 시작하여 꾸준히 혼자 공부했다. 고등학교 불어 교과서를 본 다음 소설을 읽어나갔다. 모제 두 권을 몇 번 보고나서 불어 월간지 Sélection을 매달 구입하여 보았다. 작문을 책을 읽다가 틈나는 대로 약 2천여개의 문장을 노트해 놓고 작문에 보았다. 한달동안 알리앙스에서 작문을 들었는데 도움이 안되어 그만두었다. K.B.S 불어강좌는 지금도 계속듣고 있다. 불어 단어는 영어와 비슷해서 작문할 때 자칫 스펠링이 틀리기 쉽다. 평소에 주의해야 한다. 불어테이프를 사다놓고 다른 과목 공부하다 지루하면 들곤했다.

(6) 독어

직장에 다닐 때 대입학원에서 고등학생들과 새벽반을 들었다. 독어가 어떤 것인가를 아침잠을 설치며 한달동안 나가서 배우고 이어 독일문화 학원에서 외국인을 위한 독일어를 두달 들었다. 계속해서 독문해석연구, Zeit, Beste를 6개월 수강하고, 초급중급 작문을 4달 나갔다(작문을 열심히 지도해 주시던 김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시사독어와 Beste를 중심으로 틈틈이 독어 실력을 키우며 테이프를 들었다. 작문할 때는 불어와 독일어 단어가 혼동되어 약간의 곤란도 느꼈다.

이상 생각나는대로 나의 공부방법을 적어 보았다. 혹시 참고가 될까하여 제12회 제2차 시험 성적을 알려드린다.

헌법 56.66 국제법 65.66 외교사 59.33 영어 82 독어 80.33 불어 78 평균 70.33 석차 3위

(7) 그 밖의 문제들

나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새벽 2km를 뛰고 300번 이상의 줄넘기를 했다. 시험에 임박해서는 귤이나 사과를 꼭 한두개씩 먹었다.

또 신경이 너무 예민하여 조그만 잡음에도 공부능률이 저하되어 공부장소에 큰 애를 먹었다. 마지막 70일의 정리를 기차촌에서 했는데 식사, 휴식 3시간, 수면 4시간을 제외한 17시간은 공부시간으로 확보할 수 있었다.

考試界를 비롯한 고시잡지는 꼭 구독해 보기를 권한다. 잡지에 실리는 논문과 모범답안은 꼭 정리하여 참고로 해야 할 것이다. 특히 2차시험 답안작성요령이라든가 공부방법은 잡지에 실리는 합격기라는 수험자료를 심분활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3. 제3차 시험

제2차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후 곧 제3차시험을 걱정해야 했다. 최종 시험에 떨어지면 그동안의 피눈물나는 노력이 徒勞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제11회 선배님의 조언을 얻어 차분히 준비했다. 3차시험장에서도 꽤 긴장이 되었으나 침착하게 면접을 끝냈다. 외교관이 되려는 사람은 평소에 투철한 국가관과 사명의식을 갖고 공부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1,2,3차 시험에 관하여 생각해보았는데 이것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므로 그저 참고하는데 그쳤으면 한다.

자기나름대로 알맞은 방법을 택하여 준비하되 단지 합격만을 위한 공부로 일관하지 말고 보다 폭넓게 공부하여 다음에 훌륭한 外交官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닦아 주었으면 한다.

五. 끝없는 感謝

나는 공부하다가 마음이 허전함을 느낄때면 '등대지기'를 부르곤 했다. 겨울바다를 지키는 등대지기를 생각하며 外交官이 되려는 꿈을 키웠다. 참아내기 힘든 고통도 따랐다. 내가 정말로 이 공부를 해야만 할 까하는 懷疑도 여러번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을 주셨다. 성취해 주신 것이다. 제2차시험 합격을 확인한 후 흘린 뜨거운 눈물, 그것은 분명 끝없는 感謝의 눈물이었다.

지나간 겨울은 몹시도 추웠다. 삭풍이 나뭇가지에서 잉잉거리고 흐르던 개운물은 꿈뽕 얼어 붙었다. 大地는 죽음에 잠기었다. 검은 겨울, 나는 봄을 기다리며 참고 참았다. 어느새 산모퉁이 길목에는 봄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셸리는 If Winter comes, can Spring be far behind? 라 노래했지 않은가.

六. 젊은이여!

한 나라의 國運을 좌우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外交는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동안 유신체제하의 총화적 국민행동으로 희망찬 전진을 계속해왔다. 그러나 우리의 앞날은 낙관적인 수 만은 없다. 앞으로 어떠한 시련에 직면하게 될 지 모른다.

1981년 우리나라 경제의 대외의존도는 무려 85%에 이를 것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제한되고 빈약하다. 이런 여건하에서 우리는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서 수출을 확대시켜야 한다. 상품은 생산만하면 해외시장에서 저절로 팔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상품이 수축되기 위해서는 외교적으로 길을 닦아 놓아야 한다. 여기에 바로 우리 外交陣이 수행해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 그뿐인가. 우리

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北韓과 치열한 外交戰을 벌여야 하며, 평화통일에 필요한 국제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 외교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外交官이 되려고 결심했고 또 훌륭한 外交官이 되려고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젊은이여!

그렇게 왔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

우리는 사는 듯이 살다 가야하지 않겠는가. 무엇인가 보람있는 일을 남겨놓고 가야하지 않겠는가.

七. 맺으며

두서없는 글이 혹시 여러분이 머리를 혼란시키지나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살을 베어내는 아픔을 견디며, 실망과 좌절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리다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역시 꿈이었기 때문인가 봅니다. 원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쉬지말고 물을 주며 가꾸십시오. 예쁜 꽃은 꼭 필 것입니다.

귀중한 지면을 쾌히 허락해주신 考試界社에 감사를 드리며 무한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